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주성재**

Discussions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Geographical Toponymy in Korea

Sungjae Choo**

요약 : 이 연구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명 논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에서 향후 보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명연구는 지명의 창출자와 소유자의 관점에서 지명의 생성과 변화에 나타난 지역의 인문적, 사회적, 자연적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반면, 유엔의 지명 논의는 지명 사용의 주체와 그 형태, 각 언어집단의 역할, 가치 있는 지명의 보존 등 지명의 사용자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명 표준화의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엔의 논의를 수용한 보다 확대된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분야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방향으로서, 우리 언어의 외래지명과 토착지명 사용, 지리적 실체의 본질과 인식, 국제적인 지명소통을 위한 표기법의 문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대한 연구 등이 제안된다.

주요어 :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지리학적 지명연구, 외래지명과 토착지명, 지리적 실체, 무형문화유산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search fields and topics to complement, extend and develop the geographical toponymy in Korea, largely based on a summary of topics discussed in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The Korean toponymic research has generally focused on revealing human,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y investigating the creation and change of the geographical names, with the perspective of creator and owner of the toponyms. Toponymic researches in the UNGEGN, in comparison, have put forward with the mission of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with specific emphasis on the users of toponyms. The topics include diverse forms of toponyms by user groups, roles of language groups, preservation of toponyms with specific value, etc. As research directions for an establishment of extended geographical toponymy accommodating discussions in the UNGEGN, further research topics are suggested; use of exonyms and endonyms in the Korean language, the nature of geographical feature and perception over it, writing systems for inter-language communication, and geographical name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UNGEGN, geographical toponymy, exonym/endonym, geographical fea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이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jchoo@khu.ac.kr.

1. 서론

지명(place name 또는 geographical name)¹⁾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해당 장소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게 된다(Choo, 2010b, 3). 지명이 이름 그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지명을 ‘장소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지리학적 언어(Kim and Lim, 2008, 15)’ 나 ‘장소를 형성하는 경관텍스트(Kwon, 2004, 168)’ 라고 정의하거나, 지명을 붙이는 것을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재현(Kim and Ryu, 2008, 602-603)’ 하는 과정으로 본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다.

지명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명을 논의하는 데에는 음성학(phonetics)과 의미론(semantics)과 같은 언어학 분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어학 분야에서 지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은²⁾, 지명 생성의 유래와 변형의 과정, 그리고 우리말 이름의 한자어 차용 등을 언어학적으로 추적, 정리하고 일반화, 이론화하는 일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명 연구의 분야는 이와 같은 지명의 생성과 변형, 때로는 소멸에 대한 관심에서 훨씬 더 확대된다. 지명학은 말 그대로 지명의 모든 측면, 즉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측면과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Kadmon, 1997, 3-4)³⁾. 이론 측면에서는 지명에 담긴 자연적 특성,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인구집단의 특성을 추적, 유형화하고 지명의 사용 유래를 밝히는 일이 기본 영역이 된다. 지명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확산과정과 분포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문화·역사적 요소를 복원할 수 있다. 군사적 확장이나 식민 지배 같은 특수한 경험이 지명에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지명의 관리, 그리고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지도 위의 지명 표기 방법 등이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그동안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는 지명에 나타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관, 정체성, 그리고 지명 변화의

과정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와 갈등, 주민 삶의 변화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주로 역사지리학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과거의 지리적 상황을 복원하고 경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도구로서 지명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화석화된 지명을 통해 지역의 역사지리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지리학적 관점의 지명연구는 지리학의 궁극적 지향점인 ‘지역성의 규명과 이해’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리학적 지명연구는 이렇게 인간과 지역의 관계성을 밝히는 도구로서의 기반을 기초로 하여 보다 확대할 여지가 많이 있다. 지명 자체가 지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명의 구성을 일반화, 유형화하는 것은 중요한 지리학적 연구주제가 된다. 지명의 사용자와 사용대상을 기준으로 한 지명의 분류와 표기법,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명 표준화의 방법과 이슈,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도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지명전문가들의 논의를 정리·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에서 향후 보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의 지명 논의가 국내적, 국제적인 지명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회적 실천 영역에 기반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지명 부여의 방법과 대상의 지리적 범위, 지명 사용자의 인식, 보존 지명의 추출 기준과 보존의 방법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대상으로서 깊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최근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지명연구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2.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 동향

Kim and Lim(2008)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연구의 동향을 시대별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학에서 지명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내용은 경관과 촌락의 변화, 지역의 역사지리, 영토적 의미 등과 연결되어 발전해왔음을 정리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최근까지 지리학의 지명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 첫째는 지도와 문헌에 수록된 지명을 추출·수집하고 그 유래와 명명 배경을 밝히며 유형화하고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문, 사회, 자연적 특성이 지명에 반영되어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명의 변화에 보다 주목하여 그 변화를 지명과 사회집단 간의 관계, 경관요소,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넷째는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등과 같은 지명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들 연구 흐름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연구의 성격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지명 자체의 연구로부터 지리적 특성이 지명의 제정과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개입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지명의 특성 분석, 유형화 및 변화

지명 연구의 오랜 전통은 지명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명을 전부(前部) 요소와 후부(後部)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의 언어학적 유래 추적, 음운론적 분석, 어원 조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⁵⁾. 이 경우 땅이름의 언어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명’ 대신에 ‘지명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지명 연구’란 표현보다는 ‘지명어 연구’(Chon, 2001), 또는 ‘언어학적 지명학’⁶⁾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⁷⁾.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의 영역으로서, 언어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다양한 사례연구로 확대, 심화되어 왔다.

지리학 분야의 지명 연구는 지도와 문헌에 수록된 지명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선구적인 연구로서 Park(1999)은 경상남북도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1:50,000 지형도에 수록된 촌락이름을 자연(지형, 기상, 토양 등), 인문(시설, 토지 이용, 교통, 종교 등), 공간관계(위치, 방위), 분포(대, 소, 장, 단, 수), 변천(신, 구, 원, 본) 등의 요소로 분석하고 지역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지명 추출과 특성 분석 연구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 고지도와 고문헌을 자료수집원으로 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Lim and Kim(2010)은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도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연지명과 인문지명, 지명어 빈도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한반도의 지명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Bae(2004)는 조선시대 안동도호부를 그린 지도에 나타난 지명의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고 주요 지명의 표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안동문화권의 지역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른 사례 연구로서 Jung(2005)은 1917년 자료에 나타난 경기도와 함경도의 마을명 9,921개를 대상으로 위치, 지형, 물, 기후, 사회·문화, 산업·경제 등과 관련된 마을명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이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대별 자료의 비교는 지명의 변화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Kim and Yoon(2006)은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지도와 사료 분석을 통해 울릉도의 지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밝혔으며, Kim and Yang(2010)은 1522년과 1935년 사이에 제작된 983점의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제주도 지명을 유형화하고 그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도와 문헌으로부터 추출된 지명은 필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결된다. Kim, S.(2008)는 일제시대(1914-1918) 제작된 대축척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성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Kim, J.(2008)는 19세기 군현지도집과 전국지도로부터 추출한 12만개의 지명을, Kim, J.(2009)는 1895-1906년 일본 육군에서 제작한 구한말 한반도 지

형도에 수록된 43,000여개의 지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단일 지명의 유래, 형성과정, 지칭의 범위에 대한 연구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추가령(楸加嶺)’ 지명의 유래(Lee and Jeon, 2005), 지명 ‘호남’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리적 범위(Cho, 2008), ‘백두산(장백산)’과 ‘천지’ 지명의 유래와 타당성(Lee, K.-W., 2010) 등이 주요 사례가 된다. 특정 지명군(群)에 관한 연구로서 Nam(1997)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이 흐르는 온화한 주거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명 ‘두모’와 같은 어원을 갖는 지명을 ‘두모계 지명’이라고 하고 이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단일 지명 중에서는 무엇보다 ‘동해(東海)’ 표기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지명학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지도 연구로서 Yang(2004)은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을, Lee S.-T.(2004)는 각국 도서관에 소장된 서양고지도 407종에 표기된 동해 수역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Lee K.-S.(2004)은 국제사회에 ‘동해’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의 역사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는 세계 바다이름의 유래와 유형화에 근거한 시사점 도출(Choo, 2007b), 토착지명과 외래 지명의 개념을 도입한 지명학적 접근(Choo, 2007a; 2009), 지정학적 의미 부여(Choo, 2010b)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밖에도 2006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로 제정되고 있는 해저지명에 관한 연구도 있다. 국제적인 해저지명 제정의 관례(Choo, 2006), 우리나라의 해저지명 제정활동의 내용(Choi and Kwon, 2006; Sung, 2006) 등이 그것이다. 땅이름, 마을이름이 아닌 아주 특이한 경우로서 Kim and Jang(1993)은 우리나라 5개도의 숲 지명을 도출하고, 장소적 유형, 역사·문화적 유형, 이용과 기능적 유형, 경관적 유형 등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2) 지명 분석을 통한 지리적 특성의 규명

지리학적 지명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명 분석을 통한 지역성의 규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

명 연구는 지역의 인문, 자연 특성을 밝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지명을 통한 지리적 특성은 자연지형, 재해, 풍수, 농업,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측면으로 특화하여 분석되어 왔다. 지명에 포함된 각 특성의 요소를 추출하고 유형화하고 해석함으로써 지역성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지명에 담긴 자연지형적 요소에 대한 연구로서, Gang and Beom(2005)은 거제시 마을 이름을 사례로 지형(골, 들, 목, 고지), 기상(음지, 양지, 바람), 토양과 관련된 지명을 각각 유형화하고 각 지명의 유래와 명명 배경을 정리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자연지리적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Jeon(2006)은 고려시대 이래 1920년대까지 발간된 지리지 관련 고문헌을 대상으로, 대구지역에 나타나는 지형과 관련된 지명을 분석하여 산 또는 하천과 관련된 지명이 전체 지명의 95%에 달함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인의 전통 지형관이 생활 속에서 인문과 자연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적절한 해석을 내렸다.

Lee(2006)는 사례지역을 북한의 개성직할시로 확대하여 자연지명 3천여 개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지명들을 산지, 하천, 식생, 기타(천정, 토양, 바위 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지명에 나타난 특성의 분석에 기초하여 각 유형별 자연경관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문헌의 분석, 면담, 현지답사 등의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재해와 관련된 지명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지명에 투영된 방재인식을 해석한 연구도 있다. Park and Kim(2010)은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6종의 지도, 지명목록, 지명정보서비스에 나타난 4만여 개의 재해 관련 지명을 수집, 유형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재해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김제, 천안, 서울 등 5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이를 방재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Kwon(2010)은 충남 금산군을 사례로 한국의 전통 공간인식체계로서 풍수와 관련된 지명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이 장소의미 구성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풍수지명을 산, 골짜기, 하천, 마을 등 지시대상에 따라, 그리고 사람, 짐승, 식물 등 형국

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풍수지명이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관요소이며 공동체 구성원과의 경험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라고 해석하였다. Kim, S.-B.(2010a)는 이에서 확대하여 유교, 불교, 풍수 이데올로기가 지명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대전, 충남 일대의 지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밖에 Jung(2006)은 20세기 초 자료에 수록된 7만 6천여 개의 우리나라 전국의 마을이름 중에서 농작물 관련 지명어가 들어간 마을명 1,681개를 추출하고 유형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지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물이나 현상의 명칭은 지명이 붙여진 지역에 그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였음(p.33)”을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서 농작물 관련 마을명과 농작물 재배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명이 인문, 자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지명을 붙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명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명의 분석을 통한 지리적 특성의 복원과 해석을 어느 정도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명은 현실보다 이상을 반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의 지명을 차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지명변화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

최근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서 보다 심화된 영역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지명의 변화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서는 지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관계, 사회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 주제는 권선정과 김순배가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 의해 구체화되어 간다.

Kwon(2004)은 지명을 장소를 형성하는 경관텍스트로 보고, 지명의 ‘사회적 구성’, 즉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과거 회덕현 지역의 ‘송촌(宋村)’을 사례로 하여,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된 지명텍스트가 성씨집단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체가 됨을 주장하였다. 이어진 연구에서 Kwon(2008)은 충남 금산군과 논산시의 개별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금산의 ‘불이리(不二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명이 단순한 장소 지시의 기능을 넘어 그것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수행하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산시 병사리의 ‘병사(丙舍)’, ‘유봉(酉峰)’, ‘종학(宗學)’의 사례로부터는 이 세 지명의 공간적 배치와 시간적 흐름 관계를 통해 ‘파평윤씨’로 대변되는 사회집단의 근원지 또는 상징적 중심장소로의 의미구성을 분석하였다.

Kim, S.-B.(2004)는 16세기 이래 대전 일대의 한자 지명을 사례로 하여, 사회·문화적 변화, 행정·제도적 변화, 언어적 변화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각 지명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서는 주민들의 이념, 종교 특성, 주민 상호간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Kim and Ryu(2008)는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정립을 제창한다. 여기서는 지명의 제정과 변동에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과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하여, 지명의 유연성(有緣性)과 장소 아이덴티티,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영역 경합, 그리고 이에 얽힌 권력관계와 지명스케일의 상승과 하강 등으로 지명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사례연구로서 Kim, S.-B.(2010b)은 권력관계에 의한 지명의 변화를 공주목진관 지명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그는 지명이 통용되는 영역이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하여 스케일 하강 또는 상승으로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이밖에 Cho(2007)는 전북 진안군의 지명변화를 사례로, 유교적 이념과 영향력 있는 인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지명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혔고, Lee, Y.(2010)는 장소정체성, 지명의 스케일 상승과 하강, 그리고 지명이 지칭하는 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충북지역의 지명 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사례로서 Lee(2008)는 1949년 신중국의 성립 이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지역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명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을 밝혔다.

4) 지명의 관리

지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명관리의 수요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지명관리에 대해서는 Yang and Jung(2006)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명관련 업무의 현황, 법적 제도, 운용방식 등 지명관련 업무의 실태를 지명관련 담당공무원 등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명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표준화 편람(2005)』 발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 지명관리의 기초로 이용되고 있다. Kim and Kim(2010)은 지명의 유형분류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07)에 수록된 지명들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명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선구적인 연구로서 Kim, N.-S.(2010)은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뿐 아니라 필드조사를 통해 수집한 지명을 모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지명과 연관된 지역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웹지도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분야는 지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 동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3.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의 지명 논의

1) 지명표준화의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지명은 해당 지역 또는 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그 지

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인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명은 장소 지각의 표현일 뿐 아니라 장소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지칭(reference)의 방법이 된다(Munro, 2004). 즉, 지명은 그것을 만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회집단에 의해 내부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 지명의 영향권 바깥에 있는 타인들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때로는 다른 나라의 이질적인 집단에 의해 다른 언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지역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측면에서 교류의 양과 질이 심화됨에 따라 타인에 의한 지명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지명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렇게 지명을 누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가, 각 언어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표기되는가와 같은 문제, 즉 지명의 사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 사용자로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원칙과 절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통일된 형태의 지명이다. 이것은 지명의 표준화와 연결된다.

지명의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설정된 특정한 기준과 규범에 의해 각 지명에 통일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UNGEGN, 2002, 24). 표준화된 지명은 말로 표현할 때 뿐 아니라 문서, 지도, 컴퓨터와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한 소통에 있어 편의성과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Kadmon, 1997, 187). 불확실성과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지역, 문화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명의 표준화는 필요하다.

지명의 표준화는 국가 내와 국가 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 국가 내의 지명표준화는 지명관리 기관이 주도가 되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지명의 국제표준화는 각 나라에서 이루어진 표준화된 지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도 국제 수준의 원칙과 규범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언어 간 표기 전환을 위한 음역법(transliteration)에 관한 논의가 수반된다.

지명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유엔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정확한 지명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ited Nations

Table 1. Trends of geographic toponymic research in Korea.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 동향

themes	focuses	major research subjects
Analyzing the nature of place names, categorizing them, and analyzing their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on place names themselves • collecting place names from maps and literature, analyzing, categorizing, and identifying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ce names of Korea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Lim and Kim, 2010) • place names of specific regions (Park, 1999; Bae, 2004; Jung, 2005) • place name changes of specific regions (Kim and Yoon, 2006; Kim and Yang, 2010) • database construction of ancient place names (Kim, S., 2008; Kim, J., 2008; 2009) • in-depth study of specific place names (Lee and Jeon, 2005; Cho, 2008; Lee, K., 2010) • the name East Sea (Yang, 2004; Lee, S-T., 2004, Lee, K-S., 2004; Choo, 2007a; 2007b; 2009; 2010) • undersea feature names (Choo, 2006; Choi and Kwon, 2006; Sung, 2006)
Identifying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rough place names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place names • finding human/physical geographic elements contained in place names and relating them to geographical identities of the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ysical geographical elements (Gang and Beom, 2005; Jeon, 2006; Lee, Y., 2006) • natural disasters (Park and Kim, 2010) • traditional philosophy on earth (Pungsu) and ideologies (Kwon, 2010; Kim, S-B., 2010a) • agriculture (Jung, C-Y., 2006)
Social and political meanings of place name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on the impacts of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n place name changes • analyzing the impacts of power relations and functions of social groups incurred in place name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relations between social groups (Kwon, 2004; 2008; Lee, Y., 2010) • cultural-political study on toponymy (Kim and Ryu, 2008) • impact of Confusian ideology and influential figures (Cho, S-W., 2007) • politics of place name changes in the Chinese minorities (Lee, K., 2008)
Management of place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on the methods of managing place names by the public sector • Designing methods of place names management, including datab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ement of place names by public sector (Yang and Jung, 2006, Kim and Kim, 2010) • methodology of constructing place names database (Kim, N-S., 2010)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ISGN)가 1967년 창설되었고, 이 회의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연계와 조정을 지원하고 지명 표준화의 원칙, 정책, 방법을 연구·제안하기 위한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이 1975년 조직되었다⁸⁾.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⁹⁾. 첫째, 국내외적 지명표준화 작업을 장려하는 것, 둘째, 국가의 표준화된 지명정보가 국제사회

에 확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 셋째, 비로마자 표기시스템을 로마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일 로마자표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논의는 관련된 결의(resolution)를 채택하는 형태로 실행된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10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2개의 실무팀은 현재 이 기구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짐작케 해준다. 이들 소그룹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Table 2 참조). 첫째, 지명표준화의 원칙과 내용을 논의하는 그룹이다. 지명학 용어(Toponymic Terminology), 로마자표기법(Romanization Systems), 외래지명(Exonyms), 지명의 발음문제(Pronunciation)를 논의대상으로 삼는 실무그룹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기초적인 지명정보인 국가명을 각 나라 고유의 이름과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표기할 이름으로 제공하는 국가명(Country Names) 실무그룹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지명표준화의 기술적 측면을 논의하는 그룹으로서, 여기에는 지명자료와 목록집(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실무그룹과 지도 또는 문서 편집자를 위한 지명사용지침(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실무팀

이 있다. 셋째, 지명의 보전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룹으로서, 지명교육코스(Training Courses in Toponymy), 토착민, 소수민족, 지역 언어 집단 지명의 기록 및 사용 활성화(Promotion of Recording and Use of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 Group Geographical Names) 실무그룹과 아프리카 실무팀(Task Team for Africa)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UNGEGN 자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룹으로서 홍보 및 재정(Publicity and Funding), 평가 및 실행(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실무그룹이 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는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명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된다. 지명표준화의 원칙과 내용에 관해 최근 채택된 결의에는 무형문화유산의 기준에 합당한 지명을 추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 토착민, 소수민족, 지역 언어 집단 지명의 기록 및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지명에 생존인물 이름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후 몇 년이 지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 현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국내표준화의 노력을 지속할 것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각 언어의 로마자표기법이 지속적으로 공인되어 채

Table 2. Working Groups and Task Teams of UNGEGN.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실무그룹과 실무팀

characteristics	working groups and task teams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 Working Group on Exonyms • Working Group on Pronunciation •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technical aspect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geographical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 Working Group on the Promotion of Recording and Use of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 Group Geographical Names • Task Team for Africa
evaluation of and support for UNGE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택되고 있다(Table 3 참조). 제9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총회(2007)까지 채택된 결의는 모두 195개다¹⁰⁾.

유엔 이외에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와 해저지명위원회(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SCUFN)가 있다. IHO는 수로측량, 해양과학개발, 탐사 등과 관련된 각국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일화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21년 설립된 기구이다. 여기서 수로업무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계 모든 바다의 이름과 경계를 규정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발간번호 S-23)’ 책자를 1929년 이래 세 차례 발간했으며, 현재 이 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운영 중에 있다¹¹⁾.

SCUFN은 세계 각지의 해저지형 명칭의 표준화를

위해 1974년 IHO가 유네스코 산하의 정부간 해양과학 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공해상의 해저지형을 확인하고 표준화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0년까지 해저지명목록집에 수록된 해저지명은 모두 3,500여개에 이른다¹²⁾.

IHO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바다이름을 회원국들의 제안에 의해 채택하며, 특정한 표준화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단, 국가 간에 바다이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결의 A.4.2.6를 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공유하는 해역을 갖고 있을 경우 단일 이름에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모든 이름을 존중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표준화 관련 기타 논의는 유엔지

Table 3. Major resolutions on the principle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dopted since 1998. 1998년 이래 채택된 지명표준화 원칙 관련 주요 결의

time of adoption	number of resolution	contents
9th UNCISGN 2007	IX/4	• identify toponyms that meet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epare a programme to safeguard and develop that heritage
	IX/5	• a set of guidelines be compiled and a range of models for the promotion of the recording and use of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 group geographical names be gathered
	IX/9	• introduce some amendments to the romanization system for Hebrew
8th UNCISGN 2002	VIII/1	• present a summary of the activities on the promotion of minority group and indigenous geographical names
	VIII/2	• discourage the use of personal names to designate a geographical feature during the lifetime of the person and provide guidelines on the length of the waiting period they wish to establish before using a commemorative name
	VIII/9	• undertake both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the promotion of a greater understanding of inherited geographical names with respect to local, regional and national heritage and identity
	VIII/13	• adopt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romanization of Thai geographical names
7th UNCISGN 1998	VII/5	• national standardization be based on current local usage of name forms, collected through field work

명기구에 의존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지명을 지속적으로 제정하는 SCUFN의 경우에는 지형의 종류를 칭하는 속성지명(generic name)과 새롭게 부여하는 고유지명(specific name)의 제정원칙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남극지명의 관리를 위해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에 설치되어 있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는 남극종합지명집(Composite Gazetteer of Antarctica, CGA)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36,000여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고유지명 제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공된다.

2) 외래지명과 토착지명 논의

지명의 사용자 측면을 강조할 때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지명이 각 사용자 집단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문제다. 표준화된 지명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용하며 언어가 바뀌더라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음역(transliteration)에 의해 표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언어집단에 의해 전혀 별개의 지명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외래지명(exonym)의 사용이라 하여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관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유엔지명회의의 외래지명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72)에서 각국에서 사용되는 외래지명의 목록을 만들고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출판물에서 외래지명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Ⅱ/28, Ⅱ/29)가 채택되었다. 이 내용은 제3차 회의(1977)에서 외래지명의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UNGEGN에서 그 연구결과를 교환하라는 결의(Ⅲ/18)로 재차 촉구되었으며, 제4차 회의(1982)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외래지명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표준지명과 함께 괄호 안에 표기하라는 결의(Ⅳ/20)로 구체화되었다. 제8차 회의(2002)에서는 외래지명 사용의 유형화, 토착지명(endonym)의 발음 지침 출판,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래지명의 사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창설하라는 결의(Ⅷ/4)를 채택하였다. 이 결

의에 의해 외래지명 실무그룹이 2002년 구성되었고, 현재 UNGEGN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실무그룹의 그동안 논의결과는 두 권의 책으로 편집, 발간되었다(Jordan *et al.*, eds., 2007; Jordan *et al.*, eds., 2011).

외래지명 실무그룹은 초기 몇 년간 ‘외래지명’의 정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할애했다. 그 결과 제9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총회(2007)에서 채택된 외래지명,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토착지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NGEEN, 2007, 2).

- 외래지명(exonym):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바깥에 위치한 지리적 실체에 대하여 그 실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공식 언어 또는 정착된 언어로 된 이름과 다른 형태로 표기된 이름¹³⁾
- 토착지명(endonym): 어떤 지리적 실체에 대하여 그 실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공식 언어 또는 정착된 언어로 표기된 이름¹⁴⁾

이때 공식 언어의 이름을 음역한 것, 또는 사용언어의 특성에 따라 문자표시기호(diacritic mark)를 추가, 생략, 변형시킨 것은 외래지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도’를 로마자로 ‘Dokdo’로 표기한 것은 외래지명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România’를 우리말로 표기한 ‘루마니아’도 외래지명이 아니다. 그러나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공식 언어인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기된 지명, 즉 ‘竹島(たけしま)’와 ‘Liancourt Rocks’는 모두 외래지명으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지명이다. 폴란드의 수도를 폴란드어 ‘Warszawa’ 또는 우리말 음역 ‘바르샤바’로 표기한 것은 토착지명이지만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Warsaw’는 외래지명이다. 러시아 수도의 러시아어 ‘Москва’ 또는 이것의 영어음역 ‘Moskva’는 토착지명이며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Moscow’는 외래지명이다.

중국의 수도 ‘北京’을 발음대로 음역한 ‘Beijing’은 토착지명이지만 외국인들이 붙인 ‘Peking’은 외래지명이 된다¹⁵⁾. 그러면 한국어 표기 ‘북경’은 외래지명인가, 토착지명인가? Kadmon(1997, 144)은 표기된 지명을 달리 발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래지명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사례로 ‘東京’이 일본어로는 Tōkyō, 중국어로는 Dongjing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北京’에 대한 우리말 발음 ‘북경’은 외래지명이 아니다. 그러나 ‘북경’이 문자로 표기될 때 이는 명백한 외래지명이 된다. 이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공식 언어 중국어로 표기된 지명은 北京 [Běijīng]이며, 이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은 ‘베이징’이기 때문이다. 즉, ‘북경’은 외래지명, ‘베이징’은 토착지명이 되는 것이다⁶⁾.

그동안 외래지명 실무그룹에서는 각국에서 사용되는 외래지명의 현황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몇 년간은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각 나라의 국내용 지도집, 문서, 책 등에서 외래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지명에 관한 의사소통을 보다 쉽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각국이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지명 표기에 있어 외래지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칭의 대상이 오래된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을 경우(예, Cologne[Köln], Tuscany[Toscana]), 토착지명의 발음이 외래지명 언어사용자들에게 어려울 경우(예, Wrocław[Opole], Łódź[Torunor], Szczecin [Lublin] 등 폴란드 지명), 지칭의 대상이 몇 개의 언어 영역에 걸쳐 위치할 경우(예, Asia, Amazon Basin, Danube)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Kadmon(1997, 145)이 정리한 바, 외래지명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존재하는 이유와 일치한다.

3) 언어사용집단과 지명

사용자 측면의 지명 논의에서 언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 언어집단에서 표준화된 지명이 다른 언어집단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명의 적절한 언어적 변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자의 언어를 기부언어(donor language 또는 source language), 후자의 언어를 수혜언어(receiver language 또는 target languag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 언어집단은 기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언어의 음역법(대표적으로 로마자표기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혜언어로서 일관성 있는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언어별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다⁷⁾.

이중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 왔던 것은 각 언어에 대한 통일된 로마자표기법 체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로마자표기법(romanization)은 비로마자 문자를 로마자 문자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공인된 로마자표기법을 갖는다는 것은 지도와 문서에 특정 언어로 표기된 지명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통일된 로마자표기법을 제정하는 것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로 설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유엔지명기구가 정하는 로마자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한 언어에 대해 하나의 로마자표기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통일된 단일 로마자표기법을 정하여 유엔에 보고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남북한 각각의 표기법이 유엔지명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통일된 로마자표기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인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열린 제5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87)에서는 1984년에 도입된 한국의 로마자표기법 지침을 한국어의 단일 로마자표기법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하는 결의(V / 20)가 채택되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현재까지 로마자표기법이 유엔지명회의에 보고되어 공인된 비로마자 언어는 모두 28개다⁸⁾.

지명표준화의 언어적 측면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동일한 지칭대상에 대해 언어집단별로 다른 지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표준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언어집단은 국경을 따라 나뉠 수도 있지만,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와 같이 한 국경 내에서 여럿 존재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의 이동과 국경의 변경을 빈번하게 겪었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렇게 언어별로 다른 지명들은 큰 분쟁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Danube) 강은 그 유역권의 다양한 언어집단에 의해 Donau(독일어), Dunav(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Duna(헝가리어), Dunărea(루마니아어), Dunaj(슬로바키아어), Dunai(우크라이나어) 등으로 불리면서 각 언어의 이름이 존중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지명들이 언어권마다 어떤 위상을 갖는가, 즉

토착지명인가, 외래지명인가 하는 학술적 논의(Jordan, 2009)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 언어로 표기된 지명들이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의 경우, 프랑스어 사용집단은 영어로 표기된 Quebec과 Montreal과는 차별화하여 프랑스어 지명 Québec과 Montréal을 사용하면서 프랑스어식의 강한 액센트를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과거 식민시대의 지명을 원래의 지명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⁹⁾.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유럽 국가들에 남아 있는 독일어식 지명에 대한 연구(Woodman, 2010)는 이 주제를 유럽으로까지 확대해주었다.

언어사용집단과 관련하여 최근 유엔지명기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토착민과 소수민족의 지명 보존이다. 이러한 관심은 1970년대 초 유럽 내 소수민족의 지명 표기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세계 각지 토착원주민의 언어, 문화,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지명 보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제5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87)에서 토착원주민의 지명을 수집하고 공식적인 지도와 문서에 표기할 것이며 그 지명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논의하라는 결의(V/22)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하였으며, 이후 토착민, 소수민족, 지역 언어집단이 사용하는 지명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결의(VIII/1, IX/5)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향후 이 주제는 UNGEGN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4)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²⁰⁾

토착원주민과 소수민족의 지명 보존과 같은 맥락에서, 최근 유엔지명회의는 지명이 역사, 민속, 전통문화, 사상 등의 측면에서 갖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지명을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지명이 갖는 문화유산적 요소,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명표준화를 목

적으로 설립된 유엔지명회의는 그 표준화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한 존립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 혜택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Kerfoot, 2009, 16), 그 활동은 각국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유엔지명회의의 논의는 지명표준화의 차원을 뛰어 넘어 지명 자체의 본질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엔지명회의에서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대한 관심은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92)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때는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핀란드는 지명수집의 방법으로서 동영상의 활용을 시연하면서 지명이 갖는 문화적 정체성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뉴질랜드는 마오리원주민의 지명을 보존하는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토착지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제7차 회의(1998. 1)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맥락에서 지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1998년 유네스코 제155차 집행위원회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대한 규약이 채택되면서, 유엔지명회의에서의 논의도 본격화된다.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2002)는 지명의 문화적 측면을 사회교육, 소수민족지명의 발굴과 개발, 원주민 지명의 기록과 병기의 문제, 사회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각 지역과 국가의 유산과 정체성과 관련된 지명의 수집과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라는 결의(VIII/9)를 채택했다.

2007년 제9차 회의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지정에 대한 특별 발표를 통해서 문화적 유산으로서 지명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을 보존하기 위한 각국의 프로젝트들이 소

개되었다. 원주민지명 복원사업(호주), 중요 문화유산으로서 지명 보호 종합계획(중국), 지명변화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의 계량화(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지명변기 지침 개정(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그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앞선 결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고려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지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직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명을 확인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며 이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Ⅸ/4)를 채택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은 향후 유엔지명회의에서 외래지명과 함께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될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분야에서 회의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 지명(원주민, 소수민족, 현지어 지명 포함)²¹⁾’을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

유엔지명전문가들의 관심은 2009년 발간된 편집서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서 지명(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Jordan, *et al.*, eds., 2009)’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은 지명이 갖는 문화적 측면, 경관정체성의 수단으로서 지명, 유엔지명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그리고 각국의 지명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에 관한 사례연구를 주제로 한 27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사례지역은 유럽에 집중해 있다.

4. 지명연구 분야의 확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는 지명의 유래와 명명 배경을 밝히고 이를 역사지리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적 특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지명변화에 개입된 사

상과 이데올로기의 영향, 정치와 권력관계의 구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지역의 내재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포함하여 보완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확대된 지명연구의 분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는 사용자 측면에 중점을 둔 지명의 본질 탐구에 주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명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외래지명과 토착지명 논의, 지리적 실체의 이해와 지명 표준화의 문제, 국제적인 지명소통을 위한 표기법의 문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연구의 네 가지로 나누어 향후 우리나라 지명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정리한다.

1) 외래지명과 토착지명 연구

현재까지 외래지명(exonym)과 토착지명(endonym)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로마자(roman script)로 지명을 표기하는 유럽의 전문가들에 의해 유럽 지명을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²²⁾. 빈번한 영토의 변경을 겪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영토의 경계보다는 언어권의 경계가 지명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었고, 이 특성이 외래지명과 토착지명의 정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어권 지명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논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또는 보다 확대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세 나라가 비록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호배타적이고 매우 독특한 언어체계를 구축했으며, 언어의 경계는 영토의 경계와 분리할 수 없다(Choo, 2011, 58). 따라서 어떤 지형의 이름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그것이 한 나라의 영유권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영토 또는 영유권의 경계와 같은 정치적 요소를 외래지명과 토착지명의 위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관점(Woodman, 2009)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지명이라도 세 언어

의 발음은 매우 다르며, 한국과 일본은 이를 표기할 수 있는 별개의 문자를 갖고 있다. 각 언어의 발음을 존중할 때, '東京'과 '北京'의 표기 '동경'과 '북경'은 외래지명이며 '도쿄'와 '베이징'이 토착지명이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동양어권의 외래지명과 토착지명을 논할 때에는 한자어의 발음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구두로 지칭할 경우와 문자로 표기할 경우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양어권에 있어 외래지명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외래지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가명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식 토착지명은 '대한민국'이고 이를 음역한 것은 'Daehanminguk'이다. 외래지명의 사용을 억제하라는 유엔지명회의의 결의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들은 자국의 지도에 이 표기(또는 맥쿤-라이샤워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Taehanmin'guk)를 사용한다²³⁾.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식문서와 지도책에서는 한결같이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하고, 세계 각국은 이것의 자국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²⁴⁾. Pokoly(2011)는 오스트리아 국가명으로 토착지명인 'Österreich'가 아닌 외래지명 'Austria'의 각국 표기를 사용하게 된 사례를 들면서, 외래지명으로 국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특정 외래지명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다²⁵⁾.

Kadmon(1997, 147)은 이렇게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래지명을 '전통지명(traditional name)'이라 하여 외래지명의 특수한 경우로 분류하고, 이때 토착지명과 외래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독성과 발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로 된 전통지명만을 표기하자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국명을 어떻게 표기해달라고 요청할지 여러 경우의 사례연구에 근거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²⁶⁾.

세계 각 나라 국가명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국가명을 보면 수교의 역사가 오래고 밀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갖는 나라에 대해 외래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어원은 일본과 중국의 한자 음차어의 영향

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한다.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호주', '화란' 등이 주요 사례다. 아울러 영어 외래지명을 음차하여 우리말 외래지명을 만든 경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등이 있다²⁷⁾.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외래지명 국가명 또는 도시명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 지명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 지명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다. 번역된 지명을 채택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빈번히 발견된다. 'Côte d'Ivoire'의 영어 번역 'Ivory Coast', 'Belarus'의 독일어 번역 'Weißrussland', 'Mediterranean Sea'의 한자어 번역 '地中海', '黃海'의 영어 번역 'Yellow Sea' 등이 그 사례다. 번역된 지명은 그 지형이 위치한 곳의 언어로 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래지명으로 간주된다.

지명의 번역은 대부분 주어진 지명을 다른 언어로 표기할 때, 즉 수혜언어(receiver language)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명을 제공하는 쪽, 즉 기부언어(donor language)로 된 지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해(東海)'의 번역 'East Sea'이다. 이것은 우리 영역의 지명을 공식 언어가 아닌 영어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외래지명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토착지명의 음역인 'Donghae'라 표기할 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의미를 번역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타의 외래지명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유형의 외래지명, 예를 들어 '표준화된 외래지명(standardized exonym)' 또는 '공인된 외래지명(authorized exonym)'²⁸⁾ (Choo, 2009)이라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지명, 특히 동양어권 지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사용되어 온 일본식 지명에 대한 외래지명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남게 된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적, 정서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 목록을 만들고 우리식 지명을 복원 또는 새로이 부여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²⁹⁾. 그러나 일본식 지명에 대한 정의와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왜곡한 경우 이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지형에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경우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가거초의 경우다. 이 암초는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 서남쪽에 있는 암초로서, 1927년 일본군함 ‘日向號’가 부딪쳐 침몰하면서 존재가 알려져 일본에 의해 ‘日向礁’로 이름 지어졌다. 이 이름은 이후 80년 가까이 우리말 ‘일향초’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공식 해도에 사용되어 왔으나, 일본식 지명이란 이유로 2006년 우리 정부의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가거도의 이름을 따서 ‘가거초’로 개명되었다. 그 유래와 뜻이 어떻든지 ‘일향초’는 오랜 기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 우리말 지명으로서 명백한 토착지명이다. 반면에 ‘가거초’는 아무리 가까운 섬의 이름을 딴 지명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이름이다. 이 사례는 외래지명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용되면 토착지명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가, 즉 사용기간의 문제와 지명의 유래를 외래지명의 판별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 지리적 실체의 이해와 지명 표준화 문제

지명이 지칭하는 대상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 지명연구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Kim and Ryu, 2008; Kim, S.-B., 2010b; Lee, Y., 2010). 이들 연구는 그 대상의 스케일이 때로는 상층, 때로는 하강하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권력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명 부여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실체(geographical feature)의 본질, 즉 그 규모와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인식 문제는 지리학 분야의 지명학이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최근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실체가 갖는 지명의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다³⁰⁾. 한쪽에서는 지리적 실체가 부분별로 다른 지위를 갖는다, 즉 어떤 언어의

지명은 그 언어의 경계 내에서는 토착지명이지만 다른 언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외래지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Jordan, 2009).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리적 실체를 하나로 보아 어떤 언어의 지명이 언어경계에 상관 없이 전체에 대한 토착지명이 된다고 하였다(Woodman, 2009). Choo(2011)는 전자를 ‘부분관점(the partial view)’, 후자를 ‘전체관점(the holistic view)’이라 명하고, 각 관점에 따른 지위 변화의 적용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부분관점에 의하면, 지리적 실체는 하나지만 각 언어집단에 의한 인식은 부분으로 나뉘어 달리 이루어진다. 즉, 어떤 언어집단이 ‘우리’ 지명으로 인식하는 실체는 그 언어의 경계까지며, 이곳을 넘어서면 다른 언어로 된 ‘남’의 지명이 된다. 이렇게 지명에 대해 동질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을 Jordan(2011)은 ‘사회집단(social group)’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지리적 실체에 대한 부분적 인식의 관점은 지명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Choo(2009; 2010b, 2011)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의 경계에 합의한다면, 각 수역에 각각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바다 이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분할된 각각의 동해 수역이 유엔지명회의가 요구하는 ‘인정가능한 정체성(recognizable identity)’을 가진 지리적 실체³¹⁾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Dover Strait (Pas de Calais)’와 같이 바다가 쪼개져 별개의 이름이 붙여진 사례³²⁾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계에 대한 합의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어떤 지명이 가리키는 지리적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밝히는 것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다. 동해의 경우, 한국인이 인식하는 ‘동해’는 어디까지며 바다 건너편 일본인이 인식하는 ‘일본해’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에 대한 연구는 각 사회집단의 역사, 문화, 철학, 삶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능하리라 본다. 각 집단의 관습과 정형화된 공간인식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원주민의 공간인식은 관습적으로 전체 산과 강이 아닌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 즉 물굽이나 바위에 국

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명도 전체가 아닌 각 부분에
조개어 붙여졌다는 것(Hitchman, 1986)이 밝혀진 바
있다.

3) 국제적인 지명소통을 위한 표기법의 문제

우리 지명의 로마자표기법은 지리학의 지명연구에
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분야다. 단지 최근 지리학자들
에 의해 수행된 정책연구(NGII, 2010)가 있을 뿐이다.
로마자표기법은 그 자체로서 언어학의 영역에 속하지
만, 지명을 표기할 때는 지리학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제5항과 제6항에 지명의 표
기법을 정해놓고 있으나, 좀 더 상세한 지침과 이를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의 속성지명(generic name)
또는 후부 요소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다. 현재 표기법에는 ‘산’, ‘강’, ‘도(島)’ 등을 번역하지
않고 ‘san’, ‘gang’, ‘do’ 등을 붙여 쓰도록 즉, 남산
은 ‘Namsan’, 한강은 ‘Hangang’, 독도는 ‘Dokdo’ 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로마자표기를 사용하는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영문 속성지명을
함께 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에 대해
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NGII, 2010),
필자는 속성지명이 한 음절로 된 경우는 대부분 고유
지명과 함께 한 단어로 인식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현
재 정해진 표기법대로 쓰되, 뒤에 영문 속성지명을 함
께 표기하는 것이 그 지명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남산
은 ‘Nam Mountain’ 이 아닌 ‘Namsan Mountain’, 한강은
‘Han River’ 가 아닌 ‘Hangang River’, 독도는 ‘Dok
Island’ 가 아닌 ‘Dokdo Island’ 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음절 이상으로 된 속성지명의 경우, 즉 산
맥, 고원, 해협, 평야 등은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차별
화된 여러 속성지명을 표기하는 가장 적절한 영문 단
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봉(峰)’은 ‘peak’, ‘령(嶺)’
은 ‘pass’ 등으로 ‘mountain’ 과 구별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속성지명까지 영문 표기를 제공할 것인가? 이
에 대한 대답은 지리학자들이 할 몫이다. 속성지명의
로마자표기를 보완하는 영문 표기를 표준화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속성지명에 대
한 용례, 지명사용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참고할 수 있다.

한글 지명의 통일된 로마자표기법을 마련하여 유엔
지명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어학자와
지리학자가 함께 협력할 부분이다. 통일된 한글의 로
마자표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맥클-라이샤워법에 의한
표기를 고집하던 미국과 영국의 지명위원회가 최근에
우리 정부가 현재 고시하고 있는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해왔다³³⁾. 이 결정에
따라 양 국가에서 발간되는 모든 정부문서와 데이터베
이스에 ‘Pusan’은 ‘Busan’으로, ‘Taegu’는 ‘Daegu’
로, ‘Puch’ŏn은 ‘Bucheon’으로 바뀌게 된다. 이 변화
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지도, 책, 문서에
포함된 우리 지명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
이며, 한글의 통일된 로마자표기법 마련에도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소수민족언어의 지명, 또는 언어집단
별 다른 지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한글이 아닌 언어로 된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언어의 지명이 나타날 가능
성도 있다.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식 지명, 가
산동의 중국식 지명, 경기도 안산시의 파키스탄식 지
명에 대한 연구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4)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 연구

문화유산이 조상으로부터 어떤 사람 또는 사회에 전
해 내려오는 언어, 습성, 신념, 관습 등을 말한다고 할
때, 지명에 담긴 문화유산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Watt, 2009, 21-23).

- 고향 의식(sense of home): 어떤 장소에 이름을 부
여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와 경관 사이에 창조되는
공간적 관계의 형성
- 기억과 기념(remembrance and memorial): 각 지명
이 보유하고 있는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의 대
상 등
- 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습(picture of movement)

and social interaction): 지명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이동경로,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향과 정도의 추적
· 사회적 태도에 대한 창(window into social attitude): 특정 시점에서 어떤 사회가 지닌 사회적 태도의 반영

이렇게 볼 때, 앞서 문헌부분에서 정리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 지리학의 지명연구는 문화유산의 요소를 다양하게 다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지명을 통한 촌락과 문화형성의 역사와 경관을 나타내는 텍스트로서 지명을 이해하면서, 장소의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정체성과 친숙한 고향의식을 규명하고 지명을 통한 공간인식의 스케일과 깊이를 밝히려 했다. 지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관계와 사회집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힘 있는 집단에 의한 지명주도권 행사와 이로 인한 지명변화의 과정에서 문화유산적 요소를 가진 지명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서 연구의 틀을 세우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지명연구도 문화유산의 측면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Choo, 2010a). 연구주제로서는 우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지명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선정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역사성, 지역주민과 밀착된 유래, 지역 정체성과의 연관, 지역주민의 선호, 결속력 집결에의 역할, 체계적인 기록의 여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명을 둘러싼 문화적 유산의 요소, 즉 전설, 설화, 가요, 가무, 무속 등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은 이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우리 지명에 있어서는 특히 순수 한글 지명과 한자어 지명의 관계, 일제에 의한 지명의 왜곡과 고유지명의 파괴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는 문화요소를 가진 지명의 일반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지명관리의 측면에서는 문화적 유산을 갖는 지명 또는 과거의 이름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지명의 표기와 관련된 유래,

설화, 신화, 민속, 가요 등에 나타나는 양상을 정리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새로운 지명을 제정할 때 문화적 유산의 속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과거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지명관리의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명의 문화적 요소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유엔지명회의에서 보고하고 기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2년 제10차 유엔지명표준회의의 총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되, 학술적인 내용과 더불어 문화유산으로 지명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지명연구의 지평을 넓혀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5. 결론

“이름을 알면 이야기가 보인다,” “이름을 알면 답이 보인다,” “이름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이름을 알면 운명이 보인다,” 등의 문구에서 보듯이 이름은 많은 것을 보여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땅과 그 위의 지형, 바다와 그 속의 지형, 그리고 인간이 인식하는 장소와 생활하는 공간, 이들이 갖고 있는 지명 역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정보의 원천이다. 지명은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에 의해 주어졌지만, 결코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그가 둘러싸인 장소와 환경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믿는다. 인간과 땅을 연구하는 지리학이 지명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 논의되는 지명연구의 주제에 기초하여 향후 보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는 언어학 기반의 지명연구와 차별화되어 지명의 생성과 변화에 나타난 지역의 인문적, 사회적, 자연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해왔다. 지명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며 그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지명에 담긴 각 특성의 요

소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지역성을 밝히고자 했다. 최근에는 지명 변화에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의미, 권력관계와 사회집단의 역할 등에 주목하고, 지명의 제정과 변동에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과 과정을 밝히기 위한 사례연구가 등장하였다. 공공부문의 지명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지명논의는 국가간, 언어집단간 지명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타 집단에 의한 지명사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표준화의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다. 표준화된 지명이 사용자 집단에 의해 달리 표기되는 관행에 주목하여 외래지명과 토착지명의 정의를 도출하였고, 각 집단에서 사용되는 외래지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불가피한 경우 적절히 수용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표준화된 지명을 각 언어에서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공인된 로마자표기법의 채택을 함께 추진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언어별로 다른 이름이 사용될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여기에는 정복에 의한 새로운 언어집단의 유입, 또는 기존 집단의 강제적, 자발적 이출 등으로 지명사용자가 바뀐 경우도 포함된다. 지명의 관리 측면에서 토착민과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전통이 담겨있는 지명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된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유산적 가치가 있는 지명을 확인하고 그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명의 사용자 측면, 즉 지명을 누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각 언어집단에 의해서는 어떻게 표기되는가, 그리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지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유엔의 지명논의는, 지명의 창출자와 소유자의 관점에서 지명의 지역 내적 사용을 중점 연구주제로 삼아온 우리나라 지명연구에 좋은 보완점을 제공해준다. 이와 관련해 다음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된다.

첫째는 아직 불모지로 남아 있는 우리 언어, 더 넓혀서는 동양어권의 외래지명과 토착지명에 관한 연구다.

독특한 언어체계를 가진 한국, 중국, 일본의 외래지명을 논의할 때 고려할 발음과 각 문자 표기의 문제, 세계 각 국가명의 우리말 표기와 국가명에 나타나는 외래지명의 수용, 번역된 지명의 외래지명 취급, 외래지명 관점의 일본식 지명 해석 등이 주요 주제다.

둘째, 지명이 지칭하는 대상의 스케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에 개입되는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그 대상인 지리적 실체의 본질, 규모,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각 사회집단이 특정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인정하는 지리적 실체의 범위를 그 집단이 오랫동안 경험해온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실체가 갖는 지명의 지위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도 있다.

셋째, 국제적인 지명소통을 위한 표기법의 문제도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기여가 필요하다. 우리지명의 속성지명 부분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각 유형에 대한 용례와 사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에 있는 소수민족의 지명사용에 대한 연구도 향후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에 관한 연구다. 지명에 담긴 공동체와 경관 사이의 공간관계, 기억과 기념의 대상, 사회적 변화, 사회에 대한 태도 등 문화유산적 요소는 이미 우리나라 지명연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연구흐름을 수용하여 보다 적극적, 명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지명을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한 선정기준 설정, 각 지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전통문화와 예술의 발굴, 문화적 유산을 갖는 지명의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안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명연구 분야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그 논의는 지명의 유래와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다룬 각 언어권의 이론과 사례연구로부터 보다 풍성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리학적 지명연구가 지명 분석을 통한 지역성의 규명을 목표로 하는 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할 때, 그 주제는 이론적이

고 과학적인 측면과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이러한 ‘종합적인 지리학적 지명연구’를 위한 담론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남영우(1996)는 Aurousseau(1957)를 인용하여 place name 을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장소의 명칭, geographical name 을 특정 언어로 표현된 장소의 명칭이라고 하여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명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둘은 특별한 의미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 2) 1997년 창립된 한국지명학회는 국어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 학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편집서 『한국지명연구(2007)』에 지리학자의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하다.
- 3) 지명학을 나타내는 ‘toponym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장소(place)’라는 뜻의 ‘topos’와 ‘이름(name)’이라는 뜻의 ‘onyma’가 결합된 말이다.
- 4)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2010년 말까지 지리학 분야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하였다. 단, 지리교육 분야의 지명연구는 제외하였다.
- 5) 최근 연구 사례로 Kim, J.-S.(2008)의 단행본 『지명연구 방법론』을 들 수 있다.
- 6) 인하대학교 이철수 명예교수의 견해다. Kang(1998, 226)에서 재인용하였다.
- 7) 영어로는 지명학을 나타내는 toponymy와 명칭과학이라는 의미의 onomastics의 합성어인 toponomastics가 이러한 언어학적 지명학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8) UNSCGN과 UNGEGN의 기능과 역할, 역사와 업적에 관해서는 NGII (2010)을 참조할 것.
- 9) UNGEGN Mandate에 의함 (<http://unstats.un.org/unsd/geoinfo/UNGEGN/mandate.html>).
- 10) UNSCGN의 195개 결의는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 웹사이트에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UNGEGN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다 (<http://www.land.go.kr/ungegn>).
- 11) S-23 책자는 1953년 제3권이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제4권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 이 책자의 동해 수역이 ‘Japan Sea’로 표기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제4권 발간을 위한 실무그룹의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되어 있다.
- 12)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해저지명을 SCUFN에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지명으로서 2007

년 10개(모두 동해수역), 2008년 8개(동해 4개, 황해 3개, 남해 1개)를 등재했으며, 이후 태평양해역으로 확대하여 2009년 4개, 2010년 9개의 한국식 지명을 등재하였다.

- 13) “Name used in a specific language for a geographical feature situated outside the area where that language is spoken, and differing in its form from the name used in an official or well-established language of that area where the geographical feature is located”
- 14) “Name of a geographical feature in an official or well-established language occurring in that area where the feature is located”
- 15) ‘Peking’이라는 이름은 4백 년 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 16) 우리나라 외래어표기법에는 중국의 지명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고, 한국 한자 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예, 상해, 황하, 대만 등)은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래어표기법 제4장 제2항, 제4항,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0302.jsp).
- 17) 우리나라는 2000년 문화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로마자표기법(국제적으로 MCT System이라 칭함)을 사용하고 있다. 외래어에 대해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을 정하고 있다.
- 18) Amharic, Arabic, Assamese, Bengali, Bulgarian, Chinese, Greek, Gujarati, Hebrew, Hindi, Kannada, Khmer, Macedonian Cyrillic, Malayalam, Marathi, Mongolian (in China), Nepali, Oriya, Persian, Punjabi, Russian, Serbian, Tamil, Telugu, Thai, Tibetan, Uighur, Urdu
- 19) 대표적으로 영국 식민지시대에 Bombay로 정착된 인도의 도시이름이 원래의 뿌리를 찾아 1995년에 공식적으로 Mumbai로 바뀐 사례를 들 수 있다.
- 20) Choo(2010a)의 일부분을 수정 · 가필함
- 21)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 names)’
- 22) 2011년 UNGEGN의 외래지명 실무그룹의 논의결과를 출판한 편집서(Jordan, *et al.*, 2011)에 수록된 30편의 이론, 사례 연구 중에서 비로마자 표기의 외래지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아랍어 지명을 다룬 2편, 고대 이집트 누비아족의 지명을 다룬 논문 2편, 마케도니아 지명을 다룬 논문 1편, 그리고 동해/일본해 표기를 다룬 논문 1편 등 모두 6편에 불과하다.
- 23) 필자는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 발간된 지도에서 이러한 방식의 표기를 발견한 바 있다.
- 24) 프랑스어 République de Corée, 스페인어 República de

Corea,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Корея등이다.

25) 1991년 구 소비에트공화국에서 독립한 조지아는 국가명이 러시아어 Грузия의 음역으로 Gruzija, Gruzija, Grusia, Gruzia 등으로 표기되어 왔는데,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단교한 후, 2010년 영어식 표기 'Georgia'를 따라 표기해달라고 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1992년 우리 정부의 외래어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표기 '그루지야'는 2010년 '조지아'로 바뀌었다. 조지아의 자국어 토착지명은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로마자표기 Sak'art'velo, 우리말 음역 사카르트벨로)'이다.

26)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South Korea',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사용하는 'Korea Republic' 표기에 대한 입장도 필요하다.

27) Österreich, Magyarország, Norge 또는 Noreg, Polska가 각각의 토착지명이다.

28) 외래지명이지만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된다는 점,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공인한 이름이라는 점을 고려한 용어다. 'Standardized exonym'은 UNGEGN 외래지명위킹그룹의 공동의장인 Peter Jordan이 제안하였다.

29) 최근 연구로서 Kim and Shim(2008), Park and Chang(2008) 등을 들 수 있다.

30) 이 논쟁의 상세한 내용은 Jordan(2009), Choo(2011)을 참조할 것.

31)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정의에 의하면 '지리적 실체 (geographical feature)'는 '인정가능한 정체성을 가진 지표의 한 부분(a portion of the surface of Earth that has recognizable identity)'라고 되어 있다 (UNGEKN, 2002, 10-11).

32) IHO가 발행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초안(2002년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안)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English Channel (La Manche)의 일부가 분리되었다.

33) 2011년 5월 2일~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지명전문가그룹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이 통보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Bae, M.-A., 2004, A study on the place-names in old maps of Andong-bu,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0(3), 511-538 (in Korean).

Cho, S.-W., 2007, Cause and process of place-name change by social influence: a case study of Jin-An reg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3(5), 526-542 (in Korean).

Cho, S.-W., 2008, The possibility of geographical range change of 'Ho-Nam' as a place nam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4(3), 199-211 (in Korean).

Choi, J. and Kwon, Y., 2006, Naming of undersea features in the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5), 623-629.

Chon, S.-Y., 2001, On the terms of the place name, *Journal of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5, 97-118.

Choo, S., 2006, International practices of naming undersea features and the implication for naming those in the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5), 630-638.

Choo, S., 2007a, Recent progress for restoring the name East Sea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7(1), 1-9.

Choo, S., 2007b, The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a nam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justifying the name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745-760.

Choo, S., 2009, Endonym, geographical feature and perception: the case of the name East Sea/Sea of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5), 661-674.

Choo, S., 2010a,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Gwangju, 29 January 2010.

Choo, S., 2010b, Geopolitics of the East Sea and the issue of its naming,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10(2), 1-11.

Choo, S., 2011, The name of a sea as a transboundary feature, in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Trends in Exonym Use*, Hamburg, Verlag, pp.49-60.

Gang, H.-S. and Beom, S.-G., 2005, Interpretation of physical geographic meaning of village names

- in Geoje City, South Korea,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1(5), 368-382 (in Korean).
- Hitchman, R., 1986, *Place Names of Washington*, Tacoma, Washington State.
- Jeon, Y.-G., 2006, Korean traditional view of landform revealed in place names: based on the ancient literatures of Daegu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13(4), 9-17 (in Korean).
- Jordan, P., 2009, What is an endonym? Still a question after decades of standardization, The 25th UNGEGN Session, Nairobi, WP.32.
- Jordan, P., 2011, The endonym - name from within a social group, in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Trends in Exonym Use*, Hamburg, Verlag, pp.9-20.
- Jordan, P., Adamič, M. O. and Woodman, P., eds., 2007, *Exonym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f Geographical Names: Approaches towards the Resolution of an Apparent Contradiction*, Munster: LIT-Verlag.
- Jordan, P., Bergmann, H., Cheetham, C. and Hausner, I., eds., 2009,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e für Geographie und Regionalforschung der Universität Wien, Kartographie und Geoinformation, Wien.
-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2011, *Trends in Exonym Use: Proceedings of the 10th UNGEGN Working Group on Exonyms Meeting*, Tainach, 28-30 April 2010, Hamburg: Verlag.
- Jung, C.-Y., 2005, A study of village loc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s viewed through village names: comparison of Gyeonggi-do and Hamgyeong-do,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2), 58-73 (in Korean).
- Jung, C.-Y., 2006, The distribution of village names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s during the final period of Chosun and their characteristic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2), 16-37 (in Korean).
- Kadmon, N., 1997, *Toponymy: The Lore, Laws and Languages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Vantage.
- Kang, B.-L., 1998, The review of the studies on place names, *Journal of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1, 219-276.
- Kim, H.-B. and Jang, D.-S., 1993, A study on the types of meaning in Korean village groves in place name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5, 33-51 (in Korean).
- Kim, J. and Yang, B., 2010, Changing place names and shapes of Jeju Island in western old map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2), 38-49 (in Korean).
- Kim, J., 2008, The regional and typical distribution of the geographical names found in the databased tradition maps of nineteenth-century Korea,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0(3), 51-78 (in Korean).
- Kim, J., 2009, The typical distribution of the geographical names included in Guhanmal-Hanbando Topographical Map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1(2), 58-75 (in Korean).
- Kim, J.-S., 2008, *Methods of Toponymic Research*, *Bagijeong*, Seoul (김진식, 2008, 지명연구방법론, 박이정, 서울)
- Kim, K.-H. and Lim, J., 2008, Trends of place names research in geography(지리학에서의 지명연구 동향), in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Geographers, ed., *Geography of Place Names* (지명의 지리학), 15-32.
- Kim, K.-H. and Shim, B., 2008,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modification of the Japanese style place names in Korea: A specific focus on the mountain names in Yeosu-gun, Gyeonggi-do (우리나라 일본식 지명의 관리와 정비 방안 연구: 경기도 여주군 산지 지명을 사례로), in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Geographers, ed., *Geography of Place Names* (지명의 지리학), 15-32.
- Kim, K.-H. and Yoon, Y.-C., 2006, A study on the

- historical change of place names in Ulleung Island,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1), 38-62 (in Korean).
- Kim, N.-S., 2010, A web-based mapping by constructing database of geographical nam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6(4), 428-439 (in Korean).
- Kim, S., 2008,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names on 1:50,000 topograph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1), 87-103 (in Korean).
- Kim, S.-B. and Ryu, J.-H., 2008, A theoretical construction for the cultural-political study on the place nam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4), 599-619 (in Korean).
- Kim, S.-B. and Kim, Y. H., 2010, Classification and maintenance of geographical nam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2), 201-220 (in Korean).
- Kim, S.-B., 2004, The regional factors on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place nam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6(3), 65-85 (in Korean).
- Kim, S.-B., 2010a, Ideological signization of place names: A case study of Confucian/Buddhist/Fengshui Place Name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1), 33-59 (in Korean).
- Kim, S.-B., 2010b, The politics of scale on place names: scaling up of place names' territor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2), 15-37 (in Korean).
- Kwon, S.,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place-names as a landscape text,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38(2), 167-181 (in Korean).
- Kwon, S., 2008, Place-nam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plac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0(3), 15-30 (in Korean).
- Kwon, S., 2010, The place name of Fengshui and the Meaning of Plac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1), 19-32 (in Korean).
- Lee, K.-B., 2005, A study on the error of place name location in Cheonggudo and Dongyeodo: a case study of Haemimyeo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1), 84-102 (in Korean).
- Lee, K.-S., 2004, Geographical stud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1), 1-12 (in Korean).
- Lee, K.-W., 2008, A political geography on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areas and place names in China: with emphasis on the minority nationalities autonomous distric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4(5), 627-641 (in Korean).
- Lee, K.-W., 2010, Baekdusan Mountain and Cheonji Lake: a study on the use of geographical names in Korea and Chin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4(2), 129-141 (in Korean).
- Lee, S.-T., 2004, A study on the East Sea (Donghae) in the western old map,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6(1), 157-164 (in Korean).
- Lee, Y., 2006,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ndscape of Gaesung as reflected in the geographical nam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3), 283-300 (in Korean).
- Lee, Y., 2010, The change of geographical names' territory and representation of place identity with place names: a case study of Chungju geographical nam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6(2), 110-122 (in Korean).
- Lee, M.-B. and Jeon, J.-H., 2005, Interpretation of place name 'Chugaryeong Pass' from the viewpoint of geomorphology and historical geograph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1), 47-65 (in Korean).
- Lim, J., and Kim, K.-H., 2010, A study of place names on woodblock Daedongyeo-jido,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3), 122-141 (in Korean).

- Munro, D., 2004,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chieving the impossible?,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 Names, November 4-6, 2004, Cite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France.
- Nam, Y.-W., 1997, The origin of the ancient place name, Dumo,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2(4), 479-490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2010,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for the Geographical Name and Improvement Plans*,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10,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수원).
- Park, K. and Chang, E., 2008, A study on Japanese and foreign place names in Google Earth satellite images and GNS database o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2), 188-201.
- Park, K. and Kim, S., 2010, A study of disaster recognition based on disaster-related place names,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17(2), 15-28.
- Park, T.-H., 1999, A study on village names of Youngnam Provinces: the cases of Changnyeong-gun, Bonghwa-gun and Namhae-gu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5(1), 1-24 (in Korean).
- Pokoly, Béla, 2011, Country names as exonyms, in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Trends in Exonym Use*, Hamburg, Verlag, pp.257-260.
- Sung, H. H., Activities on naming undersea featur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5), 600-622.
- Yang, B.-K. and Jung, C.,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system of geographical names in Korea,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3), 73-90 (in Korean).
- Yang, B.-K., 2004, The name of the East Sea on the Korean old maps,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6(1), 89-111 (in Korean).
-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2002, *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2007, *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ddendum*, United Nations, New York.
- Watt, B., 2009, "Cultural aspects of place names with special regard to names in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in Jordan, P., Bergmann, H., Cheetham, C. and Hausner, I., eds.,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e für Geographie und Regionalforschung der Universität Wien, Kartographie und Geoinformation, Wien.
- Woodman, P., 2009, The sea of the three endonyms, Paper presented at the 15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ydney, Australia, 3-5 September 2009.
- Woodman, P., 2010, *The Toponymy of Twentieth Century Aggression: Endonyms, Exonyms and the East Sea*, Research Repor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교신: 주성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jchoo@khu.ac.kr, 전화 02-961-9360, 팩스 02-964-0250)
- Correspondence: Sungjae Choo,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e-mail sjchoo@khu.ac.kr, phone +82-2-961-9360, fax +82-2-964-0250)
- 최초투고일 2011. 8. 1
수정일 2011. 8. 25
최종접수일 2011. 8. 30